

**A715**            **한국 제주도 해산해면류 2미기록종에 대하여**  
-다골해면목과 단골해면목-

김지영\*, 심정자  
한남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과

1998년 8월 제주도에서 SCUBA를 이용해 채집된 해산해면류를 분류한 결과 다골해면목 (Poecilosclerida), 크렐라해면속 (*Crella*)의 한국 1미기록종 *Crella incrustans* (Carter, 1885)와 단골해면목 (Haplosclerida), 관고뼈해면속 (*Siphonochalina*)의 한국 1미기록종 *Siphonochalina truncata* Lindgren, 1897이 밝혀져 보고하고자 한다.

*C. incrustans*는 9×7×2cm 크기로 조개껍질을 두껍게 덮어 싸며 표면은 거칠다. 골격구조는 주대골편인 유극침상체와 간상체, 미소골편인 등조상체가 해면질에 의해 단단하게 결합되어 술모양의 외층과 깃털모양의 내층을 이루고 있다. *S. truncata*는 크기가 3×2×1cm이며 원통모양으로 직립하며 몸의 위쪽에서 대공이 열린다. 그물모양으로 배열된 섬유의 내부에 1-2개의 봉상체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A716**            **한국산 망각해면류 가는실해면속 (*Ircinia*)의**  
**1신종 후보에 관하여**

이경진\*, 심정자  
한남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과

한국의 제주도 서귀포에서 채집된 망각해면류를 동정·분류한 결과 망각해면목 (Dictyoceratida), 가는실해면과 (Irciniidae)에 속하는 가는실해면속 (*Ircinia*)의 1신종 후보가 밝혀져 보고하고자 한다.

본종은 6.8×6.2×2.5 cm의 크기이며 높이 2-3 mm의 표면돌기가 1-5 mm의 간격으로 존재한다. 표면의 얇은 막에는 모래와 다른해면의 골편이 섞여 있다. 1차 섬유는 대부분 섬유의 내부에 많은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반면에 2차 섬유는 일반적으로 폭이 넓으며 타원형의 구멍을 내면서 연결되어 있고 섬유에 포함된 이물질은 없고 투명하다. 본종은 많은 양의 filaments를 가지며 이 filaments는 1차섬유, 2차 섬유 모두의 구멍에서 시작되거나 섬유로부터 가지를 형성하며 시작되기도 한다.